

△ (株) 新 盛 技 研

研 究 所 : 31015-31418 大田直轄市 儒城區 花岩洞 86番地 大德研究院地内
 TEL : (042)861-1540~3 FAX : (042)861-1544
 SEOUL 事務所 : 11510-01416 SEOUL 特別市 永登浦區 堂山洞 6街 297
 韓國金箔 B.D 5層 TEL : (02)631-1541 FAX : (02)678-6865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내에 자리잡은 (株) 新盛技研(代表 李完根)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신뢰성 시험장치인 Burn-In Test system과 Burn-In Board 등의 반도체 주변장치를 비롯하여, 자동화 시스템, 특수환경시험장치(열충격시험장치 등)등의 첨단기술산업분야를 개척하는 제3세대형 기업이다.

특히 신성기연은 첨단과학기술과 기업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소 시스템 방식의 기업으로서 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조장비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산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거의 선진외국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본금 7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인 신성기연의 도전은 국내사상 보기드문 모험중의 모험이자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성기연은 1991년 2월 모회사격인 신성엔지니어링의 이완근사장과 한국기계연구소의 공기조화연구실장을 맡고 있던 김광영박

사가 의기투합하므로써 탄생되었다.

지난해 7월 일본국의 Burn-In Test system 전문회사인 중앙이연과 기술제휴를 맺는 등, 첨단기술의 국산화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향하여 기술 know-How를 축적하는 동시에 국내 공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하였다.

물론 첨단기술의 제품 생산을 대부분 협력업체에 의주처리해야 하는 신성기연의 사업특성상, 협력업체의 기술낙후와 영세성은 품질관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더우기 고급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험난한 난관의 연속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수 정예화된 연구원들의 굳건

한 투자와 의욕은 신성기연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원천이다.

전자·반도체, computer, 기계 공학을 전공한 17명의 연구원들은 「첨단산업의 국산화」 「공업기반기술개발」이라는 확고한 사명 아래, 1992년도에는 20억원이상의 매출실적을 이를 예정이다.

신성기연의 연구소장겸 기술개발 총괄지휘를 맡고 있는 김광영박사는 “무엇보다도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도전한다는 긍지로 연구원 모두가 남다른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자립의 실현과 함께 핵심적인 기술력을 확보, 모범적인 창업기업으로서의 성장이 실현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뉴스

제2차 機械類 부품 소재國産化사업

상공부는 제2차기계류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사업으로는 반도체제조장비·제어용 고기능조절장치등 개발대상품목 5백22개와 전자동웨이퍼검사 장비를 비롯 양산대상품목 1백10개등 총632개품목을 1차로 선정, 1일 고시했다.

고시된 개발대상품목을 분양별로 보면 기계류 및 부품이 3백13개, 전자기기류 및 부품이 2백84개, 소재류가 35개이며 전체 고시품목중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것이 5백68개, 대기업은 64개품목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개발대상품목의 선정을 위해 1차 5개년계획과는 달리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업체와 연계, 각 업체의 신청품목을 중

심으로 수요자·생산자·관련연구기관의 전문가 5백19명으로 구성된 38개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상공부가 이번 고시한 품목을 개발코자 하는 업체는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등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품목별 개발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상공부는 이번 고시된 품목이 국산화되면 수입대체 25억4천만달러, 수출증대 18억9천만달러등 총44억3천만달러의 국제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